



▲ 전주대학교 (사진 | 홍보실 제공)

지역 혁신의 중심, 우리 대학 RISE 사업 성과 조명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추진하는 '2025년 전북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에서 도내 사립대학 중 최대 규모인 연간 121.8억 원, 5년간 약 6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전북권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수주 사례로, 다양한 RISE 세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우리 대학 RISE사업단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공동체, Rising 우리 대학'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지자체, 혁신기관, 산업체, 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단은 △정교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비교우위 지역성장 견인연구 △지역 기반 창업·일자리 지원 △평생교육 허브 △지역사회 협력 등 5대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미래 동력을 책임질 융합 인재 육성과 연구 중심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농생명, 첨단소재, 디지털 ICT, 모빌리티,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실습 및 연구 중심의 트랙별 사업

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사업단은 지난 6월 RISE사업 발대식에서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교수진과 실무진이 소통과 협업 구조를 공고히 하며 미래 전략을 공유했으며, 대학 내부 역량 결집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 변화와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RISE사업단은 전주시와 함께 'K-FILM 전주 프로젝트: 제1회 전주 영화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영상산업 환경 속 전주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지역 창작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산·학계 전문가와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수태 총장직무대행은 "향후 지역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가을학기 영어회화, 원어민 교수와 함께

전주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가 10월 13일(월)부터 11월 15일(토)까지 5주간 진행되는 '2025 학년도 가을학기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1차)'를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수준별 강의로 구성됐으며, 전주대학교 원어민 교수와 GPA 강사가 수업을 맡는다. 모든 강의는 스타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초급(Low Beginner 1A) ▲중급(High Beginner 2A) ▲중급(Intermediate 1A)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각 분반은 15명 정원의 소규모 수업으로 구성돼 학습자 참여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토요일 오전에는 '영어성경 배우기 및 현장사역 개발 프로그램(English Bible Study & Practical Ministry Development Program)'도 개설돼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1차 강좌 접수는 9월 22일부터 진행돼 개강 직전까지 진행됐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됐다. 수강료는 정규과정 13만 원, 특화 영어강좌 9만 원이며, 전주대 학생 및 교직원에는 10% 할인, 1·2차 강좌를 모두 신청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강좌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기회도 남아 있다. 이어지는 2차 강좌는 11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17일(월)부터 12월 20일(토)까지 진행된다. 또한 1·2차 종료 후 수요 조사를 통해 3차 강좌가 개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강 정보는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민영 기자(202315013@jj.ac.kr)

우리 대학 법정의무교육 매년 턱걸이... 학부생과 비전임교원이 이수율 제일 낮아

2019~2024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학생 이수율(이수 인원: 명)		학생 전체 이수율 (총 이수 인원: 명)	교원 이수율(이수 인원: 명)		교원 전체 이수율 (총 이수 인원: 명)	직원 및 조교 이수율 (이수 인원: 명)
	학부생	대학원생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2019	성폭력 - 61.3%(5,880)			성희롱·성폭력 - 24.4%(275)			75.5%(333)
	가정폭력 - 16.6%(1,600)			성매매·가정폭력 - 0%(0)			
2020	36.7%(4,124)	45.5%(499)	37.5%(4,623)	성희롱·성폭력 - 83.4%(317)	성희롱·성폭력 - 44.5%(364)	83.%(631)	성희롱·성폭력 - 83.4%(533)
				성매매·가정폭력 - 82.6%(314)	성매매·가정폭력 - 46.6%(381)	45.5%(745)	성매매·가정폭력 - 81.2%(518)
2021	54.6%(6,196)	56.9%(629)	54.8%(6,825)	80.9%(340)	77.9%(491)	79.1%(831)	성희롱·성폭력 - 96.1%(597) 성매매·가정폭력 - 96.4%(599)
2022	50.2%(5,648)	53.3%(555)	50.4%(6,203)	82.6%(304)	62.4%(397)	69.8%(701)	86.9%(484)
2023	50.5%(5,314)	63.3%(556)	51.8%(5,870)	81.4%(294)	65.9%(457)	71.2%(751)	96.8%(548)
2024	49.8%(5,105)	58.7%(457)	50.4%(5,562)	78.8%(264)	61.1%(431)	66.8%(695)	101.3%(565)

* 2019, 2020 부진기관 선정 19-21년 신분별 이수 과목 기준이 지침에 따라 상이함 / 22-25년 신분과 관계없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개 과목을 통합하여 교육 실시

▲ 우리 대학 2019~2024년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제공: 인권센터)

우리 대학의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성폭력예방·성매매예방·가정폭력예방) 이수율이 수년째 법적 기준을 겨우 넘기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진 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가 공개한 ‘2019~2024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학생 이수율은 50.4%로, 부진 기관 지정 기준인 50%를 간신히 넘겼다. 특히 학부생 이수율은 49.8%로 기준에 미달했다. 교원 이수율 역시 66.8%에 그쳐 교직원 기준인 75%를 크게 밑돌았으며, 비전임교원의 낮은 참여율(61.1%)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전체 구성원이 기준 미달에 해당하지 않았던 해는 2021년이 유일하며, 이조차도 법정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다. 심지어 2019년에는 성매매·가정폭력 교육을 교원 단 한 명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턱걸이 이수율은 대학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과거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법정의무교육 부진 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만약 다시 부진 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학 이름이 언론에 공표돼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관평가인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고 사업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여성가족부가 부진 기관 판정 기준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현재의 참여율로는 향후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과거 부진 기관 지정 이후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는 등 이수를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나아가 미이수자에게 수강 신청이나 수업 계획서 작성을 제한하는 등의 ‘법정의무교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자 본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올해 도입은 무산됐다”라며 “부진 기관 지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만큼 의무화 제도 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도입한 이후 부진 기관에서 벗어나는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학생들과 비 전임교원의 낮은 이수율은 해결되지 못했다.

한편,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JJ-AHA 시스템을 통해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재학생은 국문 영상, 유학생은 영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영상을 시청하면 이수할 수 있다. 기존 사이버캠퍼스 강의와 다르게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수 처리되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등 교육 이수자의 편의를 높였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4대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1

전주대학교 JJ-AHA 접속 및 로그인

1.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AHA 바로가기

2. inSTAR/JUIS 로그인 > 교내 사이트 AHA(법정의무교육) 학습 바로가기

3. 전주대학교 JJ-AHA 플랫폼 검색 통해 접속하기

2

좌측 탭에서 법정의무교육 선택

3

법정의무교육(4대폭력예방교육) 수강

교육대상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비정규직, 조교, 외주직원 포함)

학생(국제학생, 대학원생 포함)

언어 문화권이 다른 교내 구성원 외에는 국문 교육 수강이 원칙

문의처

063-220-2586, 2717

학생회관 2층 203호 인권센터

교육기간

2025.07.03 ~ 2025.12.31

▲ AHA(법정의무교육)학습 바로가기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권수태
주 간 | 최소담
편집장 | 전지은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 인권센터장 김인규 교수 인터뷰 -

존중의 캠퍼스, 인권에서 시작된다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건강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권침해 예방과 상담·지원은 물론, 모든 구성원이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폭력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폭력예방교육의 참여율이 높지 않아, 정부가 제시한 이수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김인규 센터장을 만나 인권센터의 주요 역할과 활동, 그리고 전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주대학교 인권센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센터의 설립 취지와 주요 역할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제6대 인권센터장 김인규 교수입니다. 인권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물론 차별이나 폭력과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본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센터의 일차적인 설립 목적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권센터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인권센터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인권센터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인권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성원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센터가 직접 조치를 하기보다는, 학교 내 관련 부서에 의뢰하여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밖에도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행사, 그리고 교육 자료나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일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인권센터의 존재와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인권센터 이용과 관련해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이나 오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A. 많은 구성원이 인권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권센터는 기본적으로 즐겁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설령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상황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권 감수성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것도 학생들이 센터를 잘 찾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더라도,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불안감, 혹은 신고로 인해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존재합니다. 또, “신고해도 제대로 해결될까?” 하는 인권센터나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 부족도 이용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Q. 우리 대학 구성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타 대학 또는 유사 기관에 비해 다소 낮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에서는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A. 우리 인권센터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면서,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학생은 50% 이상, 교직원은 75%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부진 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이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학생들이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는데, 시스템상 일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시청한 후 매 번 다시 클릭해 넘어가야 하는 등의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 이수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푸시 알림이나 이메일 공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는 교육을 필수화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해 왔지만, 아직은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구성원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인권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현재 인권센터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을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아하 시스템’에 교육 콘텐츠를 탑재하여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요청이 있으면 오프라인 대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MT를 시작할 때나 외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할 때 저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합니다. 일부 학과에서는 진로 탐색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학기마다 1~2회 정도 캠페인을 엽니다. 도서관 앞이나 학생회관 앞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인권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학생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 제작, 리플렛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인권 관련 인식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Q. 현재 운영 중인 인권센터에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권센터에서는 폭력 예방 및 인권 교육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성적을 열람하기 위해 반드시 강의평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교육 이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또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사업을 유치하여 인권 교육을 진행하거나, 지역 내 여러 대학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 사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Q. 전주대학교의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인권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나 자신과 이웃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이를 지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권 및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서 자신의 인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권을 함께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인권센터의 교육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수퍼스타칼리지 교양학부가 주관한 'JJ필독서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JJ필독서 경진대회는 전주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내 행사이며, 온스타를 통해 10월 17일까지 참가 접수가 진행됐다.

JJ필독서는 총 10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교양학부에서 지정한 10권의 책 중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면 된다. 출품작 접수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eemmaa@jj.ac.kr) 또는 우편(10월 24일 소인분까지 인정)을 통해 이뤄졌다.

원고는 한글 파일 혹은 원고지 중 하나를 선택해 작성할 수 있다. 한글 파일은 A4용지 기준 2페이지 이상 작성해야 하며, 글꼴 종류와 용지 여백 등 작성 요령을 지켜야 한다. 원고지는 기본적인 원고지 작성 방법에 따라 10매 이상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작성 요령은 온스타 JJ필독서 경진대회 게시글에 첨부된 안내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필독서 경진대회는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전통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경진대회 관련 문의는 수퍼스타칼리지 교양학부(스타센터 235호)와 수퍼스타칼리지 품성(인성)·의사소통·외국어교육과(063-220-2008)에서 받고 있다.

기사 |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김형술(사범대학 한문교육과 부교수)



한자는 장구(長久)한 시간 동안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과 자연의 면면이 반영된 글자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에서 기원한 한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딱하게 됨’을 뜻하는 ‘낭패(狼狽)’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낭(狼)’은 갓과 동물을 뜻하는 ‘ㄺ(견)’과 발음을 표시하는 ‘良(량→낭)’이 결합된 글자로 갓과 포유류(哺乳類)인 ‘이리’를 뜻합니다. 두 번째 글자인 ‘패(狽)’ 또한 갓과 동물을 뜻하는 ‘ㄺ(견)’과 발음을 표시하는 ‘貝(패)’가 결합된 글자로 역시 갓과 포유류(哺乳類)인 ‘이리’를 뜻합니다. 즉 ‘낭(狼)’과 ‘패(狽)’는 두 종류의 이리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낭(狼)’과 ‘패(狽)’는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니라 가상의 동물입니다. ‘낭(狼)’과 ‘패(狽)’에 대해서 명나라 백과사전인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패(狽)는 앞다리가 짧지만 먹을거리가 있는 곳을 잘 알고, 낭(狼)은 뒷다리가 짧아서 패(狽)를 등에 업고서 다니기 때문에 낭패(狼狽)라고 한다[狼足前短, 能知食所在, 狼足後短, 負之而行, 故曰狼狽]’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당나라 단성식(段成式: 803년경~863년)이 쓴 『유양잡조(酉陽雜俎)』에도 ‘낭(狼)’과 ‘패(狽)’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낭(狼)과 패(狽)는 두 종류의 짐승인데, 패(狽)는 앞다리가 아주 짧아서 움직일 때면 늘 낭(狼)의 넓적다리 위에 탄다. 그래서 패(狽)가 낭(狼)을 잃어버리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일이 어그러진 것을 일컬어 ‘낭패(狼狽)’라 한다[狼狽是兩物, 狼前足絕短, 行常駕於狼腿上, 狼失狼則不能動, 故世言事乖者, 稱狼狽]”고 하였습니다.

두 기록을 정리하여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낭(狼)은 뒷다리가 아주 짧고 패(狽)는 앞다리가 아주 짧은 갓과 동물입니다. 그래서 ‘낭(狼)’과 ‘패(狽)’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패(狽)’가 늘 ‘낭(狼)’의 등에 앞다리를 걸쳐야 합니다. 더군다나 ‘패(狽)’는 영리하여 사냥감의 위치를 잘 아는 까닭에 사냥할 때 ‘낭(狼)’은 ‘패(狽)’의 지시를 따라 먹잇감을 포획하게 됩니다. 둘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 ‘낭(狼)’과 ‘패(狽)’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협력하면 사냥에 성공할 수 있지만, ‘낭(狼)’과 ‘패(狽)’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그들의 사냥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낭(狼)’과 ‘패(狽)’의 이 특별한 관계에서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딱하게 됨’을 뜻하는 ‘낭패(狼狽)’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 사업 좌절로 학교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여와 곡절이 있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을 ‘낭(狼)’과 ‘패(狽)’의 관계로 비유하자면, 큰 먹잇감을 잡으려고 제안한 ‘패(狽)’의 지략(智略)을 ‘낭(狼)’이 자신의 앞다리만 믿고 무시한 채 혼자서 저 멀리 뛰쳐나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말 그대로 ‘낭패(狼狽)’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낭(狼)’은 ‘패(狽)’에게 사과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패(狽)’에게 먼저 등을 내밀어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디자인 | 이예원 기자(yewon040830@jj.ac.kr)

본지정 무산의 고배를 마신 글로벌대학, 지난 3년을 되돌아보다

지난 9월 29일, 우리 대학은 호원대학교와 연합해 신청한 글로벌대학30(이하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에 최종 탈락했다.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총 2천억 원 상당의 지원이 무산되면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 글로벌대학 사업에 지원해 매번 낙방한 우리 대학은 이번 본지정 탈락에서 가장 큰 내부 갈등을 보였다. 지난 두 번의 실패와 달리 이번에는 본지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사회의 반대로 탈락했다는 의견이 학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지난 3년간 우리 대학의 글로벌대학 지원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3년}

[4~5월]

4월, 개교 59주년 기념식과 함께 <글로벌대학 혁신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기존 개교기념식 행사와 달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박진배 전 총장은 선포식에서 "성공적인 글로벌대학 선정 추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의지를 결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글로벌대학 육성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는 우리 대학과 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해 대학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대학 지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5월에는 본격적으로 글로벌대학 선정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먼저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사 단위 구조개편안을 확정했다.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융합대학과 데이터공학과를 신설하고, 인문대학을 인문콘텐츠대학으로 변경한 후 웹툰만화콘텐츠학과와 웹문예창작전공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해 식품영양학과, 신소재화학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전공 등을 개편했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미래융합대학에 로컬벤처학과와 친환경경자동차학과, 반려동물학과, 미네르바학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5월 30일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예수대학교와 함께 글로벌대학 사업을 신청했다. 세 대학은 기독교 정신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대학으로,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세 대학의 법인이 하나로 통합하는 혁신적인 방향을 설정했다. 각각 4년제 종합대학, 4년제 간호인력 양성대학, 2~3년제 지역 특화 전문기술 인력 양성대학으로서 시너지가 클 것으로 평가받았다.

[6월]

하지만 모두의 기대와 달리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 명단에 우리 대학의 이름은 없었다. 첫 번째 탈락이다. 첫 번째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에는 총 19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전북에서는 전북대학교가 유일했다.



▲ <글로벌대학 육성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포럼>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공: 대외협력홍보실)



▲ 우리 대학과 전주비전대학교, 예수대학교 총장이 글로벌대학 공동 신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외협력홍보실)

{2024년}

[3월]

전년도의 실패를 딛고 다시 글로벌대학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는 국립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와 연합하여 참여했다. 첫 번째 글로벌대학 신청을 할 때는 세 대학이 통합을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통합 대신 연합대학 형식으로 참여했다. 3월 18일에 열린 글로벌대학 공동 추진 협약식에서 세 대학은 '유니메가버시티'라는 포괄적 연합체를 구축하고, 특화 분야 정주형 산업인력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특구 조성, 학생 선호도를 높이는 시그니처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4월]

그러나 두 번째 예비 지정에서도 탈락했다. 두 번째 예비 지정에는 33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전북에서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통합 유형으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10월]

이후 10월 30일 <제3회 전주대학포럼>에서 '글로벌대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러 구성원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의 실패를 겪으며 글로벌대학 사업을 포함해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국책사업이 우리 대학의 비전과 부합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글로벌대학 사업이 우리 대학의 장기 발전 방향보다 국가사업 취지에 편향됐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대학 선정 실패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우리 대학과 국립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총장과 내빈이 업무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공: 대외협력홍보실)



▲ 포럼에 참석한 구성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공: 대외협력홍보실)

{2025년}

[4~5월]

세 번째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에 도전하며, 호원대학교와 연합대학 체제를 이루었다.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K-Culture Gateway, K-Lift Campus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K-Food △C-Contents △K-Wellness △K-Tech 등 4대 분야에 실습·창업 통합형 공간 구축 계획을 세웠다.

위 내용을 포함한 혁신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결과, 우리 대학과 호원대학교가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후 본지정 추진을 위해 실행계획서를 8월 중 제출할 계획이었다.

[8월]

그러나 예비 지정이라는 쾌거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8월 5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글로벌대학 본지정에 필요한 <전주대-전북특별자치도 업무협약서 동의> 안건과 대학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업무협약서에는 전북도에서 글로벌대학 본지정 시, 5년간 국비의 50%(500억 원)를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K-Life STARDium 조성을 위해 글로벌대학 사업 종료 후 스타센터를 기부채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그리고 정관 개정안에는 글로벌대학 본지정 시 호원대학교와 단일 거버넌스를 구성해 연합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학교 구성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우리 대학 직원노동조합(지부장 조동기, 이하 ‘직원노조’)은 8월 5일 성명서를 통해 법인이사회가 관련 정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대학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개정안 반대로 인한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물질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인이사회가 묵묵부답하자 8월 29일 박진배 총장이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진배 전 총장은 내부망에 올린 <전주대학교를 떠나며 드리는 감사의 글>에서 “우리는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을 이루어냈고, 본지정 진입을 위해 대면 평가를 마지막으로 씬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는 글로벌대학 본지정의 필수요건인 정관 개정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반대하였습니다”라며, “한국연구재단에 공문을 보내, 전주대학교가 제출한 ‘글로벌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법인이사회 미승인 사실’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결국, 대학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 구성원들이 염원하는 글로벌대학 최종 선정을 스스로 가로막고, 오히려 멀어지게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법인이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총장의 사임 이후 대학 구성원들의 분노가 표출됐다. 우리 대학 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봉석, 이하 ‘교수노조’)도 8월 30일 1차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에게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글로벌대학을 대신할 지속 발전 방안을 9월 10일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책임지고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의미였다.

[9월]

9월 8일,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최의지)는 1차 성명서에서 “정관 개정과 스타센터 기부채납을 거부한 이번 사태는 법인이 최소한의 의무만을 간신히 지키면서도 대학 운영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를 내세우는 구조적 모순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이어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이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이라며, 원광대학교는 우리 대학과 비교해 10배 이상 꾸준히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위 내용을 근거로 △법인은 대학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인전입금 대폭 확대 △학생 사회 앞에 책임 있는 해명 △글로벌대학 본지정 탈락에 상응하는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계획 발표를 요구했다.

9월 10일, 교수노조는 2차 성명문에서 △법률이 정한 전주대학교의 자율적 운영 보장 △성실한 법인 책무 △글로벌사업 실패 시 이를 만회할 구체적 방안 제시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9월 11일, 차종순 이사장이 입장문을 공개했다. 먼저 스타센터를 기부채납할 경우 당장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고, 신축 도서관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 300억 원이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년 주기로 도래하는 대학기관인증평가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2천억 원에 달하는 스타센터의 자산가치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어, 호원대학교와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대학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고, 양 대학 총장이 2년 임기로 글로벌대학 총장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대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스타센터 기부채납 안건과 정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사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이후 학장협의회와 총학생회, 교수노조 등 대학의 여러 구성원은 그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총학생회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단식투쟁을 통해 학생 사회의 요구조건을 상기시켰으며, 이에 더해 학장협의회와 교수노조, 직원노조가 함께하는 <전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했다. 비대위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이사장 퇴진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30일 열린 법인이사회 회의에 맞춰 교내와 회의가 열리는 전주비전대학교 본관 정문에서 이사장 퇴진을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현재까지 법인이사회의 추가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법인에 비대위의 퇴진 운동 이후 관련 추가 입장을 문의하려 했으나, 추가 입장 발표는 어렵다며 “이사장의 기존 입장문과 동일하다”라고 답했다.



▲비대위가 우리 대학 스타센터 일대와 전주비전대학교 본관에서 이사장 퇴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손민기 기자)

천년의 숨결, ·전주의 밤과 빛이 깨어나다·

‘이것이 한지다’ 제29회 전주한지문화축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이것이 한지다’를 주제로 제29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한지 공예를 통해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며, 한지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도모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 주관 하에 20여 개 기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주한지운동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시민 모델 및 국제한지패션쇼 ▲한지 제조 시연 ▲한지 담론 토크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등이 있었다.

축제 기간동안 전통문화전당과 한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한지 꽃 자식, 한지 조각보 키링, 한지 민화 액자, 한지 뜨기 등 2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당 전시관에서는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 ‘한지 특별전 완산지·운수지 재현’, ‘전주-가나자와 교류전’ 등의 전시가 열려 한지의 예술적 가치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전통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대형 한지 조형물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와 함께 한지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지 비즈니스모델 ‘소한지의 집’, 손한지 판매, 한지 상품 판매 등이 마련되었다. 먹거리존·포토존·스탬프 투어·SNS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추석 연휴와 맞물린 축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주를 이뤘다. 아이와 함께 축제를 방문한 한 학부모는 “한지를 이용한 공예품의 섬세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아이에게 우리나라 한지의 아름다움과 쓰임새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1997년 제1회 전주한지문화축제 개최 이후, 전주 한지는 산업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며 천년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왔다. 축제는 전국의 뛰어난 공예인을 발굴하고, 한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외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사 | 이동현 기자(ekaren33@jj.ac.kr)

“전주, 밤을 열다. 2025 국가유산야행 성료”

전북 전주시는 지난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한옥마을·경기전·향교·풍남문·오목대·전라감영·풍패지관 일대에서 ‘2025 전주국가유산야행’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밤의 전주, 역사를 걷다’라는 주제로 후백제와 조선왕조의 관향이라는 전주의 정체성을 조명했다.

행사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됐으며, 경기전 야간 개방을 비롯해 풍남문·전라감영·향교 등 역사 유적지에서 야간 투어와 문화 공연이 열렸다. 전주 야행 스탬프 투어, 전통시장 연계 먹거리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국가유산 놀이 한 판’을 테마로 견훤 대왕 배 씨름대회, 무용 및 공연극, 객사 야담·향교 괴담 스토리텔링 체험, 역사 전문가와의 토크쇼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오목대와 풍패지관에서는 조선시대 전통의 멋을 경험할 수 있었고, 경기전에서는 고궁 야경과 함께 음악 공연도 펼쳐졌다.

주최 측은 “천년고도 전주만의 유산과 이야기가 가을밤에 녹아든 야행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내년에도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도심 야간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 마경진 기자(alfpwnsgh12@naver.com)
디자인 | 김보라 기자(kbr3163@jj.ac.kr)

<전주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 진행>



9월 10일(수) 오전 11시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에서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교직원 예배가 드려졌다. 개강예배는 선교지원실 강사 백승연 목사의 경배와 찬양 이후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의 기도와 더온누리교회 김종홍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종홍 목사는 스가랴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전주대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였다.

참석한 교직원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다짐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갈 예정이다.

선교지원실 이유민 행정원

그림자

한국어문학창작학부 변혜린

길을 걸으면
나보다 앞서 가는 것이 있다
빛이 달을 때마다
모양을 바꾸며 나를 따라온다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숨바꼭질하듯 사라지지만
늘 내 곁에서
조용히 나를 비춘다

어둠 속에서도
그림자는 내게 말을 건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고

<기독교 정신>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캠퍼스의 아침은 조용히 깨어난다. 새벽 다섯시, 미화원 김 여사님의 손이 강의실 문고리를 돌리고 들어가 어제 학생들이 흘린 커피 자국을 닦고, 어지럽게 놓인 의자를 반듯하게 정돈한다.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움직임은 부드럽다. 마치 자신의 집을 가꾸듯이, 마치 자신의 자녀들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듯! 나눔은 소유의 포기가 아니라 존재의 확장이다. 봉사는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몸의 아름다운 기울기다. 캠퍼스 안에 다양한 손과 발, 다양한 기다림이 모여 전주대를 구성한다. 교수와 직원과 학생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는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짓는 건축가다.

나눔으로 경계를 허물고, 봉사로 서로를 세우며, 희생으로 타인의 여백을 만들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정의로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독교 대학의 저력이다. 십자가 걸린 건물이 있다고, 예배당이 있다고, 채플이 필수라고, 기독교 대학인 것은 아니다. 십자가를 건물이 아니라 전주대 구성원 각자의 어깨에 걸고 삶

으로 짊어지는 것이 기독교 대학이다. 기독교 정신은 교리나 규칙이 아니라, 매일 아침 캠퍼스를 깨우는 미화원의 손에서, 학생을 기다리는 불 켜진 연구실 주인의 설레는 얼굴에서, 낯선 학생에게 미소 짓는 직원의 따뜻한 표정에서, 어려운 학생을 위해 기도하는 사감의 송고한 무릎에서 구현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서로에게 상처까지 준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다시 함께 걷기 때문이다.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인격을 빛는 곳, 교육은 정보의 이전이 아니라 생명의 전수라는 것, 공동체는 규정으로 유지되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한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우리가 건네는 작은 친절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무거운 침묵이, 언젠가 이 교정에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가깝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 오늘도 궤도를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다.

교수칼럼

마음을 끄는 사람 되기



박현진 교수
(인문콘텐츠대학 한국어문학과)

제 2언어 학습 이론은 20세기 중반부터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언어 학습을 주로 인지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점차 감정적, 정서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촘스키(Chomsky)의 이론이 지배적이던 가운데 실제 학습 환경에서 인지와 감정의 조합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은 크라센(Krashen, 1982)의 감정 여과기 가설(Affective Filter Hypothesis)의 영향이 크다. 크라센은 학생의 감정 상태가 제 2언어를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학생의 동기, 불안, 스트레스 정도와 같은 감정적 요인이 일종의 여과기(filter) 역할을 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언어 입력이 기억되는 것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좋아서 한국에 온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꿈이 생긴 외국인 학생'이 '부모님이 보내서 한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보다 한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 제 2언어 학습 이론에서 감정이 인지적 정보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감정이 언어 입력의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감정 상태가 인지적 학습의 전제 조건이 되기에 감정이 부정적이면 인지적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는 제 2언어나 외국어 학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속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자신의 악마 조카 윈우드를 가르치며 "인간의 마음을 방해하는 원수(하나님)와 떼어 놓는 데는 불안과 염려만 한 것이 없지. 원수는 사람이 현재의 일에 몰입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작전은 그들이 앞으로 닥쳐올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악마는 인간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을 과도하게 생각하게 해 현재의 삶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악화시키는 데

에 감정을 활용한다. 인간이 자기 심리 상태에 휘둘리면 정보를 듣고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졸업하면 취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앞으로 학교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와 같은 눈앞의 염려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나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들리고 안 보일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필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과연 나는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감정이 학생들에게 전이되지는 않는가? 나아가 나는 교수로서 학생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교수인지, 내가 가르치는 방식은 학생들을 공부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지 돌아본다. 내가 느끼는 기쁨과 희망이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에게도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좋아해서 국어 과목이 좋아졌다는 학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망망대해 속에서 삶을 마주하다, 라이프 오브 파이

제목: 라이프 오브 파이
감독: 이안
장르: 모험, 드라마
러닝타임: 127분

1884년 영국의 미뇨네트호에는 선장 더들리와 선원 스티븐스, 브룩스, 리처드 파커가 타고 있었다. 영국에서 호주로 향하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했고, 네 사람은 간신히 구명정으로 탈출했다. 처음에는 구명정에 있는 식량을 먹고 빗물을 마셔보았지만 금세 바닥났고, 갈증을 참지 못한 리처드 파커는 바닷물을 마셔 다음날 탈수 증세로 고통스러워한다. 더들리 선장과 스티븐스는 그를 살해하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채 식인을 한다. 며칠 뒤 선장과 선원들은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영국으로 돌아가고, 더들리 선장은 구조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결국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더들리 선장과 스티븐스는 교수형 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호적 여론 등으로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이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라이프 오브 파이>다.

이 영화는 액자식 구성으로 전개된다. 성인이 된 파이가 한 작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화가 시작된다.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소년 '피싱'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자, 원주율을 끝없이 외워 자신을 '파이(π)'라고 친구들에게 각인시킨다. 그러던 중 정부의 동물원 운영 지원금이 끊기고, 파이 가족은 동물들을 배에 실어 캐나다로 이주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구명정에는 파이와 다친 얼룩말, 오랑우탄, 하이에나가 남게 된다. 하이에나가 다리를 다친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공격해 잡아 먹어버리고, 파이마저 위협에 빠진 순간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등장해 하이에나를 잡아 먹는다. 파이와 리처드 파커는 서로를 경계하며 불안한 동행을 시작한다. 파이는 점차 구명정 생활에 적응하고, 리처드 파커를 훈련하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에 휩쓸려 미어캣이 가득한 신비한 섬에 도착한다. 파이는 평화로운 섬에서 머물기로 마음먹었지만, 그곳이 산성화된 '죽음의 섬'임을 깨닫고 다시 항해를 시작한다. 긴 표류 끝에 멕시코 해변에 도착한 리처드 파커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밀림 속으로 향하고, 파이만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치료를 받는다.

이후 배의 침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찾아온 일본 보험사 직원은 파이가 동물들과의 구명정 생활을 한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한다. 그러자 파이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랑우탄은 자신의 어머니이며, 얼룩말은 다리를 다친 선원, 하이에나는 배의 요리사였다고.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며 영화는 끝난다.

파이는 바다 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친구들이 있는 인도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을 막기라도 하듯 호랑이 리처드 파커는 그에게 긴장감을 주어 강한 삶의 동기를 찾게 한다. 결국 파이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신비한 자연을 경험하고 멕시코 해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서 삶의 방향을 잃곤 한다. 그런 순간, 영화 속 이야기는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나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파이의 항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기사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디자인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기자칼럼

숫자로 환산되는 노력, 공백기의 공포

양예은 기자
(kikiyye@jj.ac.kr)

구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은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는 말이다. 대학을 휴학하고 가진 휴식,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보낸 시간, 몇 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훌쩍 떠난 여행은 면접관들에게 백지의 시간으로 보인다. 공백기는 게으름의 증거가 된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7명은 “공백기에 대한 질문이 두렵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압박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일 것이다.

대학생에게 스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각종 자격증, 900점대의 토익 점수와 4점대의 학점, 방학 중 인턴 경험 등 수치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간판이 된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명확히 알고 즐겁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의미한 대외 활동과 관심 없는 자격증 취득에 내몰린다. 모두가 대학 4년 동안 이력서를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열된 경쟁 속에서 휴식은 사치로 여겨진다. ‘공백기가 있으면 취업에 불리하다’는 괴담 속에서 청년들은 의미 없는 활동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기게 된다. 면접 때 “뭐라도 했다”라고 말하기 위해 취미나 여행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다고 작성한다.

그렇다면 숫자는 인간을 평가하기에 적합한가? 토익 점수는 언어 능력을 온전히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실제로 해외 지사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단편적이다. 봉사 활동 시간은 인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는 큰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 진정한 배움보다는 이력서 채우기용 활동이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펙 쌓기용 대외 활동에 참여할 경우, 무임금이거나 적은 보상 때문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74%가 “스펙 쌓기가 즐겁

지 않다”라고 답했으나, 그중 60%가 “그럼에도 스펙 쌓기를 그만둘 수 없다”라고 답했다. 모두가 이런 모순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비교과 프로그램과 자격증 강좌, 각종 대외 활동을 경쟁적으로 운영하며 스펙 쌓기에 전념한다. 이러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지만, ‘힘의 의미’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다.

기업이 단순히 지원자를 효율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만든 평가 방식의 피해자는 결국 청년이다.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나만의 속도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을 확대하며 공백보다 ‘경험의 질’을 본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년이 쉬면 뒤쳐진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같은 분야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교 특성상 남과의 비교는 피할 수 없다. 경쟁이 동기부여가 되어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압박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삶의 중심이 뚜렷하지 않은 청년에게 그 무게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그러나 공포와 불안을 떨쳐내고 자신에게 집중하면 마음의 부담은 줄어든다. 필요한 휴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가 규정한 ‘공백기’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미다. 공백기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면 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격증의 개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찾은 의미와 성장이다. 자신을 알고 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수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스펙이다. 노력은 수치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시간의 총합이다.

고교학점제, 자율이라는 허울

김소율 기자
(soyul06@jj.ac.kr)

2025년,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이 제도는 획일적 주입식 교육을 넘어, 진로와 적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했다. 교육부는 이를 공교육 혁신과 ‘학생 중심 교육’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정책 명분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괴리가 존재한다.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허울뿐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과 교사를 경쟁과 혼란의 뒷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제도의 핵심은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과 ‘다양성’이다. 그러나 상대평가 체제는 이러한 이상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학생들이 진로와 흥미보다 점수 획득이 유리하거나 경쟁이 덜한 과목으로 몰리면서, 최소 수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과목은 폐강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상적인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던 제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학생들을 경쟁의 구도로 몰아넣고 있다.

교사들의 부담도 심각하다. 학생별 시간표 조정, 과목 개설·폐강 관리, 진로 상담, 미이수자 보충 지도까지 이를 수행할 인력과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전체 수업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 성취도 40% 이상)까지 시행되면서 추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수업 준비 시간까지 줄어들어 수업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내신 5등급제와 현 체제가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등급 간 구간 확대를 목표로 한 5등급제는 오히려 경쟁 압박을 강화했고, 상위 등급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커지며 학생들은 선택의 자유보다 등급 경쟁에 몰리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9월 25일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보충수업 시간 완화, 출석 미달 학생의 온라인 추가 학습, 출결 관리·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다과목 수업 교사 연수, 교사·강사 인력 확충, 간 온라인 교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형식적일 가능성이 크다.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만 전가하고 있다.

특히 아직 고1인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와 과목 선택을 동시에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 학생 중심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려면, 현실적 여건을 갖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준비 없는 시행으로 혼란만 키우고 있다.

결국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경쟁과 부담만 남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유지는 의미가 없다. 학생이 진정한 학습의 주체가 되려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교육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학생의 선택이 경쟁의 굴레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키우는 날개가 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시행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독자투고 안내



우리 대학 신문은 구성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지면에 담고자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대학 생활 속 이야기,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 등 자유 주제로 작성하실 수 있으며, 모든 분야의 진지한 성찰과 따뜻한 시선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편집 과정을 거쳐 지면 또는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며,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고형식

자유

투고자격

본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

제출방법

이메일(news@jj.ac.kr) 제출

필수기재

성명, 연락처, 소속(학과 및 부서)

Department of Webtoon and Comics at Jeonju University Successfully Concludes ‘Saemangeum Buddy Buddy’ Project with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

Nine Outstanding Works Selected to Promote Saemangeum Through Creative Content

Jeonju University’s Department of Webtoon and Comics Content (Acting President Kwon Soo-tae) announced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its joint promotional collaboration program, “Saemangeum Buddy Buddy,” with the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 on September 30.

The project aimed to raise awareness of the Saemangeum region’s unique appeal through the creation of innovative promotional content.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visited the Saemangeum site in person, drawing inspiration to produce a variety of creative works—including webtoons and videos—that highlighted the region’s distinct character and future potential.

Under the theme “Saemangeum, Drawn with Generation Z,” the six-month program encouraged students to depict Saemangeum from the fresh and youthful perspective of their generation. A total of nine outstanding entries were selected, with the creators receiving certificates and scholarships personally signed by the President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

Professor Cho Yoon-sook, head of the Department of Webtoon and Comics Content, remarked:

“This project not only deepened students’ interest in the region but also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to showcase their creativity and passion. It was a meaningful and enjoyable experience for everyone involved. We hope that the dedication and affection shown for Saemangeum will continue to inspire new and diverse initiatives in the future.”

Building on the success of this initiative, the Department of Webtoon and Comics Content at Jeonju University plans to expand collaborations with local public institutions and businesses, offering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that extend beyond academic achievement to include meaningful contributions to society.

article by th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 (uptoillie20@jj.ac.kr)

Jeonju University Spin-Off ‘Dareun OReum’ Wins Grand Prize in Technology Innovation at the 2025 Korea Trusted Innovation

Jeonju University Subsidiary ‘Dareun OReum’ Wins Grand Prize for Technology Innovation at 2025 Korea Trusted Innovation Awards

Jeonju University (Acting President Kwon Soo-tae) announced that ‘Dareun OReum,’ a subsidiary of its Technology Holdings Company, has been awarded the Grand Prize in the Technology Innovation category at the 2025 Korea Trusted Innovation Awards, hosted by JoongAng Ilbo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n September 29.

Dareun OReum, known for its premium traditional Korean liquor brand, has gained recognition for its efforts to modernize and globalize Korean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s. Its flagship products—‘Haruju’ and ‘Poongnyeong 1979’—have been central to this success.

‘Haruju’ is crafted from only three natural ingredients—rice, nuruk (fermentation starter), and apples—reflecting a minimalist, additive-free brewing philosophy. Meanwhile, ‘Poongnyeong 1979’ has earned praise for its wine-like refinement, rich grain aroma, and refreshing carbonation, appeal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umers.

Dareun OReum’s products have proven their competitivenes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global market. Both beverages received international accolades at the International Wine & Spirit Competition (IWSC), one of the world’s top three liquor contests—‘Haruju’ in 2024 and ‘Poongnyeong 1979’ in 2025—demonstrating their quality and international appeal.

The Dareun OReum research team—Kim Ji-eung, Lee Mihwa, Lee Sugyeong, and Lee Seong-gu—shared their aspirations:

“We aim to redefine traditional liquor not merely as an old beverage but as a cultural asset that connect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cross borders. This award inspires us to continue promoting the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liquor.”

Kim Sang-jin, CEO of Jeonju University Technology Holdings Company, added:

“This award recognizes not only product excellence but also serves as a model example of how regional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can collaborate to reinterpret traditional industries and expand them into global markets innovatively.”

article by th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 (uptoillie20@jj.ac.kr)

Jeonju University Holds Traditional Songpyeon-Making Program for Local Seniors

Wansan-gu Center Hosts “Playing with Rice & Making Songpyeon” Program for Local Seniors

The Jeonju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Director Kim Sang-jin), which operates the Wansan-gu Center for Children and Social Welfare Meal Management under commission, hosted a special program titled “Playing with Rice & Making Songpyeon” from September 25 to October 1.

This hands-on program was offered to registered social welfare meal service facilities within Wansan-gu. Local seniors who participated had the opportunity to make songpyeon (traditional Korean half-moon rice cakes) from start to finish—kneading and shaping the dough, adding fillings, and learning about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tradition. The program not only deepened participants’ appreciation of Korean heritage but also fostered emotional connec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rough shared group activities. The fine hand movements involved in the process were also noted for their positive effects on maintaining and improving fine motor skills.

Cha Kyung-hee, director of the center and professor of Korean Culinary Arts at Jeonju University, shared her thoughts:

“This program offered our senior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experience Korea’s traditional culture while participating in a healthy and enjoyable activity. We will continue to develop programs that share the warmth of the holidays and create lasting, joyful memories.”

The Wansan-gu Center for Children and Social Welfare Meal Management, operated by the Jeonju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was established to promote safe and balanced diets. The center provides hygiene and nutrition management for children and social welfare meal services, customized nutrition education and consulting, guidance on safe ingredient use, and a variety of cultural and health-oriented food programs.

Through these initiatives, Jeonju University applies its academic expertise in food, nutrition, and culinary studies to enhance the well-being of the local community.

article by th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 (uptoillie20@jj.ac.kr)

Jeonju University Connects International Students and Local Families Through “Host Family Matching Ceremony”

Jeonju University Hosts 2025 Host Family Matching Ceremony for International Students

Jeonju University (Acting President Kwon Soo-tae) held the 2025 Host Family Matching Ceremony for International Students on the evening of September 25 at the university’s Star Tower.

The event, part of the RISE (Regionally Innovation-centered System of Education) project, aimed to foster a global community culture by connecting international students with local families—helping them build meaningful familial bonds that transcend borders.

Over 60 participants attended, including 24 international students from Nepal, China, Japan, and Vietnam, along with 24 local host families. Each student was matched with a host family in a one-to-one pairing and will continue to meet regularly, gaining firsthand experience of Korean family life while overcoming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The ceremony was filled with heartfelt moments and warm exchanges.

Zhou Gan, a fourth-year student from China in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hared:

“I first met my host family in 2023. Since then, they’ve treated me like their own child, offering sincere care and support. My parents in China were deeply moved when they heard this and now feel much more reassured about my life in Korea.”

Tamang Juna, a first-year student from Nepal who began her studies this September, said:

“Studying in Korea feels like a dream come true, and meeting such wonderful parents here makes me truly happy. Meeting a family in a foreign country gives me great strength. I believe this relationship will become a strong source of support for both my studies and daily life.”

Representing the host families, Mr. Ahn Uk-hyun expressed his thoughts:

“I received a lot of help while studying abroad, and now I feel it’s time to give back the love I once received. Even though we may differ in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I will continue to support these students with genuine care and affection.”

Shim Young-guk, Directo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emphasized the broader vision of the initiative:

“The Host Family Program goes beyond simple support—it’s a meaningful experience of cultural exchange and mutual understanding.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local community to create a stable and supportive environment where international students can focus on their studies.”

He added:

“Jeonju University is committed to becoming an institution that truly helps international students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and lead fulfilling lives here.”

Through this program, Jeonju University expects to achieve several positive outcomes, including:

- ▲ Supporting international students’ successful adjustment to life in Korea
- ▲ Strengthening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local community

Article by th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 (uptoillie20@jj.ac.kr)

全州大学举办外国留学生中秋安全·文化体验活动
-携手地区机构共建 暖多元的节日氛围-



全州大学（校长职务代行:权洙台-音译）在今年中秋连休期间，为帮助初次在韩国过节的外国留学生安全、温暖地度过假期，举办了多样的安全与文化体验活动。

本次活动以今年9月入学的新生为主，共有约300名外国留学生参加。活动由全州大学国际交流院主办，并与WithU中心（主任：卞镐相-音译）、Goodwill中心（主任：李洪基-音译）、Dreamy中心（主任：梁成恩-音译）等地区留学生支援机构合作开展。

学校在长假期间强化了安全管理，制定生活安全应急手册，并由负责职员每日巡查宿舍，确保学生生活安全。同时，与指定医院建立了紧急应对合作体系，以便在突发情况下及时提供医疗支援。

为丰富留学生的节日体验，学校还组织了“分享松糕”、“世界美食制作”、“留学生体育大会（足球·传统游戏）”、“水果派对”、“南原文化体验”、“金堤地平线庆典参与”等丰富多彩的活动。此次活动凝聚了产业、学界与政府的合力，成为产、学、官合作共育国际人才的生动实践。

WithU中心提供了食材与烹饪场地，Goodwill中心派出志愿者协助活动进行，Dreamy中心则负责体育大会及现场翻译工作，保障了活动的顺利开展。

来自尼泊尔的塔曼·朱娜（酒店经营学科）同学表示：“这是我第一次在韩国过中秋。学校和各机构的关怀让我感受到家的温暖。在金堤地平线庆典上体验传统游戏和制作松糕的过程，让我更深入了解了韩国文化。”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表示：“外国留学生不仅是校园的一部分，更是地区社会的重要人力资源。大学将继续与地方社会携手，帮助留学生成长为推动地区发展的优秀人才。”他还强调：“今后将持续扩大与地区的交流项目，营造让留学生与社区共同成长的环境。”

全州大学计划今后进一步强化与地方机构的合作体系，持续推进生活安全管理、文化交流及志愿服务等实质性支援项目，帮助留学生更稳定地适应韩国的生活与文化。

全州大学举行外国留学生与寄宿家庭结缘仪式
-促进全球共同体文化传播，助力留学生融入与地区共生-



全州大学（校长职务代行：权洙台-音译）于9月25日晚7时在校内Star Tower举行了“2025外国留学生寄宿家庭结缘仪式”，为外国留学生与韩国当地家庭搭建起一座心灵交流的桥梁。

本次活动是RISE（地方创新主导型大学支援体系，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项目的一部分，旨在通过寄宿家庭计划，让留学生与韩国家庭像家人一样相处，促进全球共同体文化的传播，帮助他们更好地适应韩国生活。

当晚的活动共有来自尼泊尔、中国、日本、越南等国家的24名留学生与24个韩国家庭参与，约60人出席。留学生与寄宿家庭将以“一对一”的方式结缘，今后将定期见面、共度节日，体验韩国家庭文化，跨越语言与文化的隔阂，建立深厚情谊。

活动现场气氛温馨，笑声与感动交织。来自中国的周妍（经营学科四年级）同学分享道：“自从2023年第一次见到我的‘韩国父母’，就感受到了真切的关怀与照顾。我的中国父母听到这个消息后也非常高兴，觉得我的留学生活变得更加有意义。”

刚入学的尼泊尔新生塔曼·朱娜（音译，经营学科一年级）也表示：“能来韩国留学就像做梦一样，而遇到这么好的‘寄宿父母’让我感到无比幸福。在异国他乡能有像家人一样的人，是我坚持下去的力量。”

参与家庭代表安旭贤（音译）先生也感慨道：“我在留学时也曾受到很多人的帮助，如今能将那份爱心传递下去，心里非常激动。尽管文化、语言和宗教不同，但只要有真心与关怀，我们就能彼此理解、共同成长。”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表示：“寄宿家庭项目不仅仅是生活上的帮助，更是一次深刻的文化交流与心灵沟通的经历。学校将继续与地方社会携手，为留学生打造安心学习、温暖生活的环境。”他强调，全州大学将努力成为“帮助留学生与韩国社会共同成长”的大学典范。

据悉，全州大学通过该项目，期待进一步实现多项积极成果，包括：帮助留学生顺利适应韩国生活；加强大学与地方社会的合作；促进多元文化交流；推动全球民间外交的实践。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
전원 경찰 압송

최근 판결과 통계는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출국자 중 상당수가 단순한 취업 목적이 아닌, 불법 스캠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매년 2,000~3,000명이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파악한 약 1,000명의 가담자 외에도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속아서 갔다’라는 일부 가담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이 18일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국적기 안에서 체포됐으며,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각 경찰서로 압송돼 수사받는다. 송환자 대부분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서 활동한 하루 조직원으로, 일부는 스스로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수억 원을 잃고도 배상이 어렵다”라며 분노를 표했고,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엔 왕이 없다”...전국 2,600곳 뒤흔든
반트럼프 ‘노 킹스’ 시위

18일(현지 시각) 미국 전역 2,600여 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를 비판하는 대규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열렸다. 워싱턴DC 펜실베이니아 에비뉴에는 수만 명이 모였고, 뉴욕·보스턴·시카고 등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참여한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로 평가됐다. 시위대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군대 동원·언론 탄압·법원 판결 무시 등을 규탄하며 “미국에는 왕이 없다”라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자신이 왕관을 쓰고 시위대를 조롱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평화 시위”라고 지지했고, 공화당 지도부는 시위대를 “미국 혐오 세력”이라며 비난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